

회 의 록

회의명		2024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일 시		2024. 5. 31.(금) 11:40 ~ 12:00				
장 소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				
안건		- [제5호]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재심의				
회의결과		- 원안의결				
참석 현 황	참석 대상자	22명	참석 내역	참석자: 18명 강석구, 최인호, 서연주, 정세은, 김운용, 홍장희, 조성환, 설현주, 조성범, 김태섭, 김지수, 윤난희, 이재훈, 김필형, 이찬술, 이한길, 송채린, 전득수	불참 내역	불참자: 4명 노수림, 이왕록, 김 담, 윤다녕
	참석자	18명				
	불참자	4명				
주요 발언내용						
<div>■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재적위원 22명 중 18명 참석.</div> <div>■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 2024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div> <div>■ 의안 제5호</div> <div>○ 의장(○○○): 제5호 안건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재심의하겠습니다.</div> <div>○ 교무과장(○○○): 회의 자료에 따라, 제5호 안건 제안설명.</div> <div>○ 의장(○○○):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총장 본 안건에 대한 설명.</div> <div>○ 총장(○○○): 우리 대학 여건도 묻고, 몇 차례의 학무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해왔으며,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 90명 증원으로 승인을 받았음. 몇 개의 대학들이 50%만 모집하기로 협의하였고, 우리 대학은 올해 45명만 더 모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의대 교육의 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의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음. 선택지가 별로 없음. 교육부에서 확정된 입학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데, 총장이 이를 어기면 대학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음을 고려해 보기 바람. 향후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는 물론, 학교도</div>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의장(○○○): 전체 안 중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제의하지 않는 데에 동의하는지?
- 의원들: 동의함.
- 의원(○○○): 의대 증원을 늘리지 않았을 때, 학생정원의 5% 모집정지 외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는지?
- 교무과장(○○○): 지금으로서는 교육부에서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음.
- 의원(○○○):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안타까움. 과거에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도 그랬었음. 대학의 자율권을 수호하느라 구성원들이 열심히 투쟁도 했었음. 자율권을 수호한다고 하기에는 우리 후배들, 학생들이 갖는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움. 최소한 우리 학교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함.
- 의장(○○○): 투표 진행하겠음. 찬성 13표, 반대 5표, 제5호 안건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은 원안의결 되었음.

■ 폐회